

혁신도시 부영CC 용도변경 문제 도마

■ 오늘 전남도 국감 쟁점

미래에셋 경도 개발 논란

의대신설·광주 군공항 이전도

15일 치러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남도 현장 국감에서는 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 부영CC 잔여지 용도변경 특혜 문제와 함께 미래에셋그룹이 추진하는 미래에셋 경도 개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행정행위로 인해 특정 기업에 친문학적 개발이익을 안긴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올 한해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궜으나 아직 마침표가 찍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사안 모두 일파파와 의혹이 커지는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도 '부동산 개발이익의 소수 독점'이라는 문제와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국정감사에 나선 국민의힘의 공세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감사반장(행안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12명이 위원으로 나선다. 감사반장을 제외하고 민주당에선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을 비롯해 6명, 국민의 힘에선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 등 4명, 정의당 이은주(비례) 의원이 참여한다.

여야 위원들은 감사에 앞서 전남도에 1000건 이상의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하면서 송곳 감사를 베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감사장에서 부영CC 용도변경 문제, 미래에셋 경도 개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답변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CC 용도변경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최소 5000억짜리 특혜' 사업으로 규정되면서 한국에너지공단(한전공대법) 제정 당시 국회에서조차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한전공대 부지(40만㎡)로 기부하고 남은 부영CC 잔여지 35만여㎡에 5328가구 규모의 고층 아파트 단지 조성

이 가능하도록 토지 용도 변경(자연녹지-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지역사회에선 한전공대 부지를 부영주택 축이 제공했다고 해도, 합당한 공공기여가 없다면 용도변경은 안 된다는 여론이 확고하다. 이 사안은 현재 나누시 단계에서 행정절차가 추진 중이나 최종 결정 권한은 전남도에 있다.

미래에셋 경도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에 없던 레지던스(생활형숙박시설·1181호실 규모) 건설 문제를 사업자 측이 들고오면서 여론이 악화됐다. 관광단지 조성은 뒷전이고 부동산 이익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이 커진 것이다. 전남도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인허가 단계에서 지역 여론과 동떨어진 사업자 측면에 기운 결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경우 전남도 및 산하기관 노사 문제를 지적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감사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1시간 40분에 불과한 데다, 주말을 앞두고 지방에서 진행되는 현장 국감이라는 점에서 원론적인 지

점이 이어진 뒤 다소 심하게 국감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남도에 대한 공세만 펴는 게 아니라 지역 현안 또는 숙원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의견을 표명하는 시간도 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국회를 대표해 전남을 찾은 만큼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문제, 한국에너지공단 정상 개교,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문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한빛원전 안전문제 등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사안에 관심을 표명하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약속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국회 행안위 감사반 일행은 오전 전남도 국감, 오후 전남경찰청 국감을 마치고 일명 퍼플섬으로 알려진 신안 반월박지도(보라색섬)를 찾는 현지 시찰 일정도 계획하고 있다. 섬 발전 촉진법(옛 두서개발촉진법)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가 국회 행안위로, 다수 위원이 섬 방문을 희망해서 잡힌 일정이라고 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남도에서 한달 여행하기' 체류형관광 활성화 '특목'

전남도가 지난 5월부터 여행과 일을 함께하면서 전남의 숨겨진 경관과 문화에 흠뻑 빠져보는 체류형 여행 프로그램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를 운영, 참가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는 참가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전남의 매력적인 관광자원 발굴, 홍보 등의 과제를 부여해 수행토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14개 시·군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여행 작가, 파워블로거 등 전남의 관광콘텐츠를 적극 홍보할 대상자 68명 106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최소 7일에서 최대 30일 동안 전남 구석구석을 여행하며 홍보 과제를 수행한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가자들이 특정 시기에 집중하지 않도록 분산 운영하고, 숙소와 식당 등의 방역과 위생을 철저히 점검 관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전에는 알지 못했던 전남의 소소한 장소에서 숨겨진 매력을 느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경관과 푸근한 인심 속에서 지친 마음도 달래고 있다.

순천에 머물렀던 한 참가자는 "항상 바쁘던 일정으로 여행을 해 순천의 속살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는데, 한 달 여행하기를 통해 순천을 아주 깊이 호흡할 수 있었다"며 전남도 관광누리집인 남도여행길잡이(www.namdokorea.com)에 후기를 남겼다.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의 가장 큰 매력은 스쳐가는 여행이 아닌 체류하는 여행"이라며 "자연스럽게 지역의 문화와 분위기를 느끼고, 다시 한번 전남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어 입소문까지 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여행하고 싶은 도시 광주' 사진·영상 공모...총상금 1억

광주시가 총상금 1억여원을 걸고 관광 디지털 콘텐츠를 공모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공모전은 '여행하고 싶은 도시, 광주'를 주제로 사진, 영상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영상은 일반인과 전문 기업의 기술력을 고려해 일반·기업 부문으로 구분해 공모한다.

국내 거주 내외국인, 국내에 사업장을 둔 기업체는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광주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사진, 영상을 촬영해 내년 2월 7일부터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출품작 중 사진(일반), 영상(일반·기업) 등 3부문에 9권씩 모두 27건 수상작을 선정한다. 대상에는 기업 부문 2000만원, 일반 500만원의 상금과 광주시장상을 준다. 부문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상금은 1억 400만원이다. 수상작은 TV 광고, 시와 광주 관광재단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광주 관광 홍보자료로 활용한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여행하고 싶은 도시 광주를 알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지역의 맛과 멋을 담은 사진, 영상의 적극적인 출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자체 고유사무 국감 중단을"

전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전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15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남도 현장 국감을 앞두고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 감사 중단을 촉구했다.

전남도청노조는 14일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 30년, 지자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속히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올해 국감 자료 1000여 건 중 80% 이상이 지방자치사무"라고 밝혔다. 노조는 "전남도는 국정감사를 빼고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와 정부중합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감사를 교차로 받고 있다"며 "(법적 권한 없는 국회 감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된다"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14일 국정감사가 지자체사무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다면 청사 내부 도로가에 국정감사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어등산 관광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전문가 참여 TF 가동...합리적인 재추진 방안 마련

서진측 "사업 의지 변함없어...소송 등 대응방안 검토"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면서, 사업자인 서진건설과의 소송전이 예고되고 있다.

광주시는 14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 사업자 사업제한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

소하고, 서진건설측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019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서진건설을 대표 주관사로 하는 '쥬어등산관광개발피에프비' 컨소시

엄을 선정했지만, 총사업비 범위 등에 대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를 결정했다.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관련 규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의견진술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앞으로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재추진을 위해 전문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TF

팀을 구성하고 공공개발, 민간합동개발, 민간개발까지 모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개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본격적으로 TF팀을 가동해 합리적인 재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사회단체, 의회 등 광주공동체와 공론화를 통해 속도감 있게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진측은 광주시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를 통보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서진 관계자는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는 변함없다"면서 "내부적인 논의 등을 거쳐 법적 소송 등을 포함한 여러 대응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